

아시아 역내 철강수출 변화와 시사점

- 중국, 인도, 동남아 수출을 중심으로 -

추지미 수석연구원, 동향분석센터 (jmchu@posri.re.kr)

목차

1. 최근 세계 철강교역 흐름
2. 중국, 교역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driver
3. 인도, 수출 경쟁에 뛰어드는 game-changer
4. 동남아, 생산설비 확충으로 자급도 향상 기대
5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2017년 세계 철강교역은 中 교역량 위축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인도, 이란 등의 수출 물량 확대로 미미한 감소에 그침
 - 세계 철강 교역량은 2017년 중국 수출의 33.3백만톤 감소에도 불구하고 10.4백만톤 줄어드는 데 그친 4.6억톤 기록
 - 중국의 수출 감소 물량을 인도, 이란을 비롯한 캐나다, 브라질, 터키 등의 국가에서 상쇄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침
- 중국은 아시아 역내 교역의 흐름을 변화시킨 동시에 공급과잉 축소 효과로 글로벌 철강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driver 역할
 - 중국 수출은 공급측 개혁과 환경규제 단행 및 예상외 내수 호조 등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로 2017년 전년비 30.7% 줄어들며 4년 전 수준으로 회귀
 - 국가별로는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인도, 중동, 아세안, 한국 등을 위주로 '15년 peak 대비 대부분 지역向 감소했으며, 제품별로도 봉형강류를 중심으로 전 제품에 걸쳐 감소

〈 중국의 주요국향 수출 추이 〉

(단위: 백만톤)

	2015	2016	2017	증가율(YoY)
한국	13.5	14.3	11.4	△20.5%
인도	4.8	3.3	2.5	△23.2%
일본	1.3	1.3	1.1	△14.9%
아세안	34.6	38.9	23.3	△40.3%
중동	10.9	10.5	6.6	△37.5%
미국	2.4	1.2	1.2	1.1%
유럽-28	8.6	6.4	4.2	△35.3%

자료: 중국해관총서

〈 중국의 주요 제품별 수출 추이 〉

(단위: 백만톤)

	2015	2016	2017	증가율(YoY)
철강재계	112.4	108.5	75.2	△30.7%
봉형강류	49.1	46.3	19.3	△58.3%
판재류	48.5	48.0	43.1	△10.3%
강관	9.3	9.0	8.2	△9.3%

주: 중후강대(HR Plate)는 열연에 포함

- 중국 수출 감소는 인도·동남아產 수입 대체 등으로 아시아 역내 교역의 흐름을 변화시킨 동시에 공급과잉 축소로 글로벌 철강경기 개선에 기여
 - 중국產 유입 감소 지역인 미국, 아세안 등에서는 인도, 이란, 캐나다產 철강재로 수입을 대체하면서 교역 흐름 변화
- 중국 주요 기관 전문가들에 따르면 '18년에도 중국 수출은 70백만톤 내외 수준을 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

- 인도는 조강생산 1억톤 돌파로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세계 교역 시장에서 중국이 주축한 사이 수출 경쟁에 새롭게 뛰어든 game-changer
 - 조강생산은 2017년 6.2% 증가해 처음으로 1억톤 돌파,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6.6%로 수요를 웃돌며 공급과잉 심화
 - 인도 수출은 중국 수출 급감의 반사이익 및 유럽, ASEAN 시장의 성공적 확대에 힘입어 '17년 전년비 58.2% 증가한 16.2백만톤 기록
 - 인접 지역인 네팔과 바닷길 교역이 수월한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해 미국, 유럽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아시아 교역구조 변화를 예고
- 동남아, 생산설비 확충 계획에 따른 자급도 향상 기대
 - 아세안-6 수요는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'07~'17년 연평균 5.4% 증가하며 고성장한 반면, 생산은 동기간 1.8% 증가하는 데 그침
 - 아세안-6 수입은 생산이 철강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2016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71.1백만톤 기록

〈 ASEAN-6 철강 수급 실적('16) 〉

(백만톤)

	인도네시아	말레이시아	필리핀	싱가포르	태국	베트남	ASEAN-6
조강생산	4.7	2.8	1.1	0.5	3.8	7.8	20.7
증가율(YoY)	△2.2%	△27.0%	11.1%	3.8%	2.9%	38.3%	6.5%
수출	1.6	1.4	0.0	1.7	1.5	2.5	8.8
수입	12.6	9.1	7.2	4.3	17.6	19.5	71.1
순수입	11.0	7.6	7.2	2.6	16.1	17.0	62.3

자료: worldsteel, SEASI

주: 순수입=수입-수출

- 한편, 아세안-6 조강생산은 2017년 베트남 상공정 설비의 역내 최초 가동으로 15.7% 증가해 최고치 경신, 자급도는 수입재를 대체하면서 향상 기대
- 세계 철강교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, 중국産 부진을 틈탄 인도産 확대 및 동남아 자급도 향상으로 세계 교역 시장에서는 중국·인도를 예의 주시
 - 세계 철강 교역량은 교역환경 악화와 중국 수출 급감에도 수출 확대 국가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
 - 아시아 역내 교역구조는 중국 수출의 80백만톤 지속 하회, 인도發 공급과잉 본격화 및 동남아의 생산설비 확충으로 점진적인 변화 예상
 - 인도 수출은 공급과잉 본격화로 증가하나, G2 무역전쟁으로 갈 곳을 잃은 미국向 물량이 인도·유럽·동남아 등으로 유입되면 지속적인 증가에 제한
 - 교역환경 악화와 아시아 교역 변화에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되면서 관세 부과로 곤란을 겪는 피해국과 반사이익을 누리는 수혜국으로 나뉠 전망

1. 최근 세계 철강교역 흐름

□ 세계 철강 교역량은 中 수출위축으로 4년 만에 감소했으나 미미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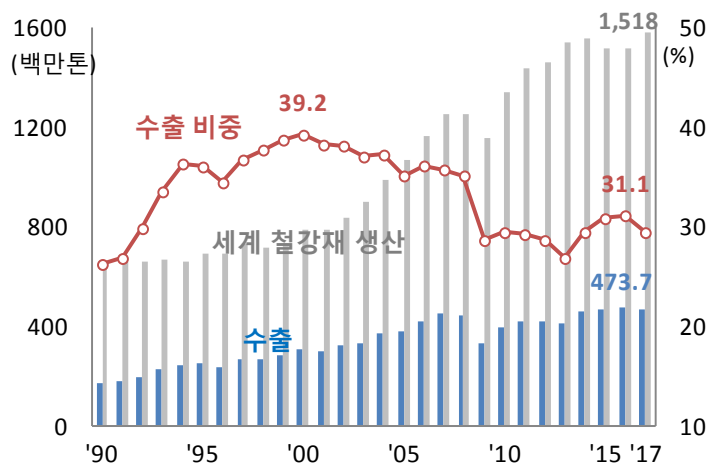
○ 글로벌 철강 교역량은 2017년 중국 수출의 33.3백만톤 감소에도 불구하고 10.4백만톤 줄어드는 데 그친 4.6억톤 기록

- 교역 환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이었으나, 중국발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수출량 확대로 2~3년째 통상마찰이 빈번해지며 점차 악화
-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, 글로벌 총생산 대비 철강재 수출 비중은 '09~'14년 30%를 하회하면서 안정적 교역량을 보였으나, '15년 이후 30%를 상회하자 위협을 느낀 국가들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나섬
- '16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이에 따른 미국·EU·인도 등 수입규제 강화에도 세계 철강 교역량은 1.3% 증가한 4.7억톤을 기록하는 등 타격 미미
- 반면, '17년 교역량은 중국産 물량 급감으로 감소하면서 비중도 29.4%로 하락

○ 중국의 수출 감소 물량을 인도, 이란을 비롯한 캐나다, 브라질, 터키 등의 국가에서 상쇄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침

- 인도, 이란의 철강 수출은 '15~'17년 각각 연평균 47.0%, 40.1% 증가해 물량으로는 12.4백만톤 늘어나며 교역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짐
- 또한 캐나다, 브라질, 터키 수출도 각각 1.8백만톤, 1.6백만톤, 1.6백만톤 늘어났으며, 미미한 규모지만 태국, 호주 등의 수출도 26% 내외 증가

〈 글로벌 철강재 생산 및 수출 〉



〈 주요 수출 증가국 및 순위 〉

	2015	2016	2017	증감 ('15~'17)
터키	15.0(10)	15.3(10)	16.6(9)	+1.6
인도	7.6(17)	10.3(14)	16.3(10)	+8.7
브라질	13.7(11)	13.4(12)	15.3(11)	+1.6
캐나다	6.0(20)	5.8(19)	7.8(19)	+1.8
이란	3.8(24)	5.7(20)	7.5(20)	+3.7
태국	1.3	1.5	1.9	+0.6
호주	0.8	0.8	1.0	+0.2

자료: worldsteel, World Steel in Figures

주: ()는 순위

2. 중국, 교역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driver

□ 中 수출은 공급측 개혁 및 내수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로 급감

○ 2017년 중국 철강재 수출은 전년비 30.7% 줄어든 75.2백만톤으로 4년 전 수준으로 회귀

- '15년에 중국 수출은 중국 내 공급과잉,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내수 위축, 정부 증치세 환급 등의 수출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.12억톤을 보이며 정점을 기록
- 그러나 '16년 美, 유럽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충격으로 3.5% 감소한 데 이어 '17년에도 물량으로 약 33백만톤 줄어들면서 80백만톤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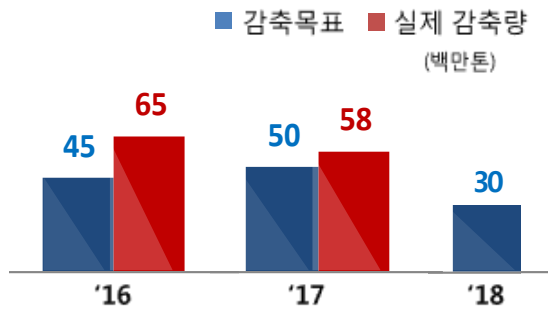
○ 수출 급감은 정부가 그동안 구호에 그쳐오던 '공급측 개혁'과 '환경규제'를 과감히 단행하면서 '16~'17년 과잉설비를 성공적으로 감축한 데 주로 기인

- 중국 정부는 과잉설비 해소와 구조조정 등을 강력하게 시행해 '16~'17년 1.23억톤 설비 감축, '16년 2월 발표한 '16~'20년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과잉설비 감축 목표의 83% 달성
 - 더욱이 '17년 상반기 유도로 설비 폐쇄(약 1.2억톤)로 제도권 이외 설비 감축 목표(1억톤)도 달성함
- 또한 환경규제의 일환으로 석탄 다소비 산업에 대한 유례없는 동절기 감산을 이행해 '18년 3월까지 4개 성 28개 도시에서 철강 50% 감산
- 최근 생태환경부(MEE)는 '18년 5월 철강기업 '초저배출(ultra-low emissions) 개혁 방안'을 발표해 철강업계의 오염배출 기준을 한 단계 강화

○ 한편, 중국의 경제 및 수요산업 회복에 따라 철강수요도 당초 예상(0%)을 상회하는 3% 늘어나면서 예상외 호조를 보여 수급여건 호전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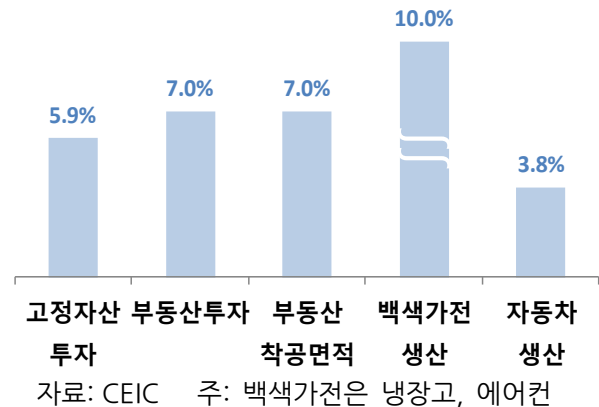
- 경제 성장률은 정부 경기부양에 힘입어 '17년 6.9%를 기록해 당초 중국 정부 목표치를 크게 웃돌며 철강수요 호조에 일조
 - 2017년은 시진핑 정부 1기 5년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최고지도층인 공산당 중앙위 상무위원을 교체하는 시기여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었으나, 시진핑 2기 5년의 성공적 출범으로 당분간 경기 부양 필요성은 낮음
- 부동산 관련 투자 증가세, 제조업 생산 증가 등으로 '17년 철강수요 3.0% 증가 추정
 - 공식통계상 수요는 '17년 8.3% 늘어났으나 유도로 제외 시 3.0% 증가

〈 中 철강 생산능력 감축 목표 및 성과 〉



자료: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Mysteel

〈 中 주요 수요산업 증가율 추이('17년)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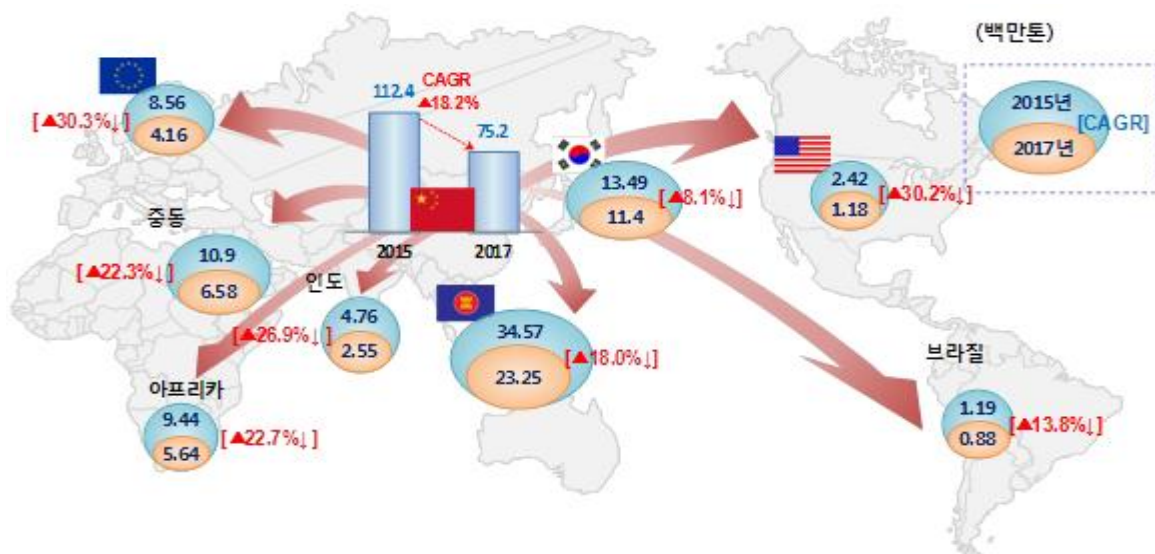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 주: 백색가전은 냉장고, 에어컨

□ 국가별로 전 지역에 걸쳐 수출 감소, 제품별로는 봉형강류 위주의 급감

○ 국가별 수출은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향을 비롯해 인도, 중동, 아세안, 한국향 등 '15년 peak 대비 대부분 지역으로 감소

- 미국·유럽향 수출은 반덤핑 관세(AD)와 상계관세(CVD) 등을 다수의 철강재에 부과함에 따라 지난 2년간 연평균 각각 30.2%, 30.3% 감소
- 아세안향은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 등에 밀어내던 저가 봉형강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'17년에 전년대비 40.3% 감소한 23.3백만톤
- 두 번째 수출국인 베트남향은 '16년 11.7백만톤을 정점으로 '17년 34.6% 감소한 7.6백만톤 기록
- 중동향도 형강, 봉강 등 강건재가 줄어들면서 지난 2년간 연평균 22.3% 감소

〈 중국의 주요국향 수출 추이 〉



자료: 중국해관총서

주: []은 '15~'17년 연평균 증가율(CAGR)

○ 제품별 수출도 '17년에 봉형강류를 중심으로 전 제품에 걸쳐 감소

- 봉형강류 수출은 '17년 58.3% 급감한 19.3백만톤을 기록했으며, 물량으로 전체 수출 감소분의 81.2%를 차지하는 27.0백만톤 감소
 - 봉강은 구조조정에 따른 감산과 일대일로 등 자체 수요 창출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 '16년 30.2백만톤에서 '17년 1/3 수준인 9.6백만톤으로 감소
- 판재류의 경우, 미국·유럽 등의 수입관세 부과에 따른 열연 및 중후판 감소에도 고급강 수출 전략에 힘입은 냉연, 도금강판 등의 물량 유지로 5.0백만톤 감소하는 데 그침
 - 냉연은 지난 2~3년간 '중국 때리기(China Bashing)'의 주요 표적이었으며, 미국, 멕시코, 유럽 등에서 고율의 AD/CVD 부과로 '16년에 이미 24.2%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기저효과로 오히려 8.7% 증가
 - 도금강판은 중국 고급강 전략에 힘입어 '16~'17년에 12백만톤을 상회하는 수준 유지

□ 중국 수출 감소는 인도·동남아産 수입 대체 등으로 아시아 역내 교역의 흐름을 변화시킨 동시에 공급과잉 축소로 글로벌 철강경기 개선에 기여

○ 중국産 유입 감소 지역인 미국, 아세안 등에서는 인도, 이란, 캐나다産 철강재로 수입을 대체하면서 교역 흐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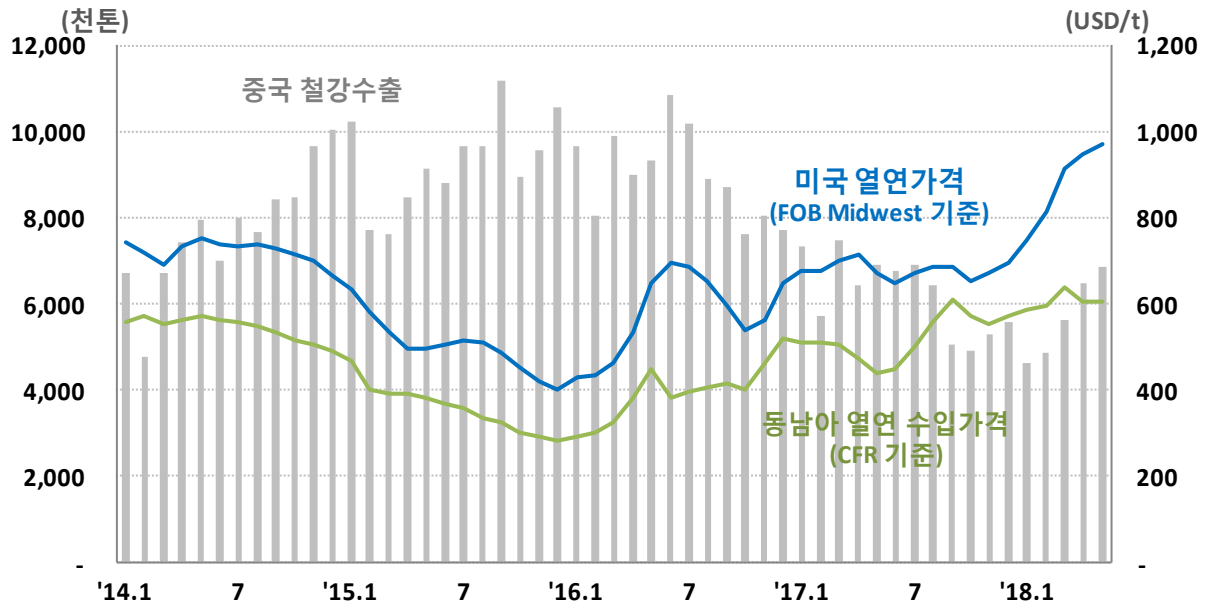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경우, '16~'17년에 중국産 철강재 수입이 연평균 41.5% 감소
 - 판재류는 중국産 철강재를 캐나다, 멕시코에서 대체하고 있으며, 봉형강류는 인도네시아, 태국, 베트남 등 동남아産과 바레인 등 중동産으로 전환
 - 반제품은 지난해 브라질, 러시아 등에서 주로 유입, 브라질産 절반에 육박
- ASEAN-6 시장에서 중국産은 호주, 인도, 러시아産 철강재로 대체
 - '16년 ASEAN-6 시장에서 호주産 146%, 인도産 58.9%, 러시아産 32.4% 증가했으며, SEASIS 역내 교역에서는 인도네시아, 태국 등에서의 수입 증가

○ 결국, 공급과잉 축소로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철강 시황까지 개선되는 효과

- 중국 수출 물량이 '15년 1.12억톤으로 고점에 도달했을 때, 미국 열연가격과 동남아 열연 수입가격은 각각 503U\$/t과 358U\$/t로 저점 기록

- 반면, 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미국 열연가격과 동남아 열연 수입가격은 '15년 대비 5월 현재 각각 92.9%과 69.2% 상승해 617U\$/t, 521U\$/t을 기록

〈 중국 월별 철강수출 및 주요국 열연가격 추이 〉



자료: worldsteel, 중국해관총서, CRU

- 중국 주요 기관 전문가들에 따르면 '18년에도 중국 수출은 70백만톤 내외 수준을 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올 1~5월 중국 수출 실적은 16.3% 감소한 28.5백만톤 수준에 불과한 상황
 - '17년 9월과 '18.5월 야금공업경제연구센터, 연합철강망, Mysteel 등에 따르면, 中 수출은 65~70백만톤을 보이고 장기적으로도 지속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

3. 인도, 수출 경쟁에 뛰어드는 game-changer

□ 인도는 조강생산 1억톤 돌파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순수출국 전환

- 철강수요는 경제 고성장, 인프라 확충 및 건설, 자동차 등 수요산업 호조 등으로 '07~'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5.4% 증가
 - 경제 성장률은 모디 정부의 인프라 투자, 제조업 육성 등에 힘입어 6%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철강수요 확대에 기여
 -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, 인도 철강수요는 건설, 자동차, 내구 소비재 등 산업 호조로 '17년 4.3% 증가
- 2017년 조강생산은 6.2% 증가해 처음으로 1억톤 돌파, 지난 10년 동안

연평균 증가율은 6.6%로 수요를 웃돌며 공급과잉 심화

- 부실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추진에도 기존 대형 JSW, TATA 등의 신규설비 본격 가동으로 조강생산은 '17년 6.2% 증가

〈 인도 철강생산 및 순수출 추이 〉

(백만톤)



자료: worldsteel, ITA

주: 순수출=수출-수입

〈 주요 수출국 순위 및 물량('17) 〉

	국가	수출량 (백만톤)	비중
1	네팔	1.8	11%
2	베트남	1.7	10%
3	이탈리아	1.6	10%
4	벨기에	1.21	8%
5	UAE	1.16	7%
6	미국	0.72	4%
7	말련	0.68	4%
8	인니	0.64	4%
9	스페인	0.59	4%
10	스리랑카	0.52	3%

○ 중국 수출 급감의 반사이익 및 유럽, ASEAN 시장의 성공적 수출 확대에 힘입어 인도 철강 수출은 '17년 전년비 58.2% 증가한 16.2백만톤 기록

- 세계 주요 수출국 순위에서 '16년 14위에서 '17년 10위로 4단계 상승
- 인도의 최대 시장은 인접국가인 네팔로 반제품 및 봉형강류를 위주로 '17년 1.8백만톤 수출했으며, 두 번째 시장인 베트남에는 판재류를 중심으로 동기간 1.7백만톤 수출
- 아세안과 미국向 수출은 중국 수출 급감과 주변국 통상마찰 심화의 반사이익 효과로 '17년에 급격히 증가
 - 베트남 286%, 인도네시아 182%, 스리랑카 137%, 말레이시아 115%, 이탈리아 114%, 미국 87% 증가
- 제품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, 반제품 17%, 판재류 59%, 봉형강류 9%

○ 인도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교역시장에서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리며 새로운 game-changer로 부상

- 인접 지역인 네팔과 바닷길 교역이 수월한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해 미국, 유럽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아시아 수출구조 변화를 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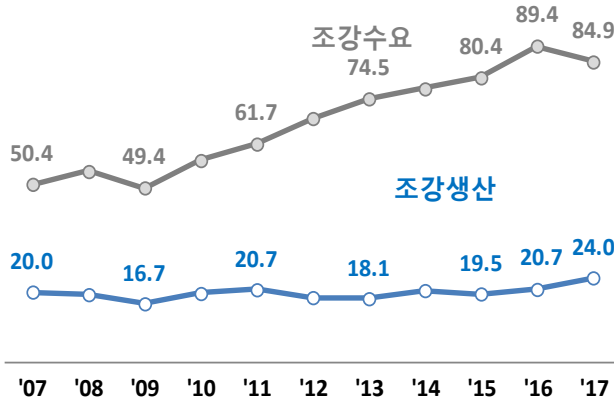
4. 동남아, 생산설비 확충으로 자급도 향상 기대

□ 아세안-6, 내수 고성장의 견인에 따른 최대 수입 시장

- 동남아 철강수요는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고성장한 반면, 생산은 더디게 증가
 - 아세안-6 철강수요는 경제 고성장, 외국인직접투자(FDI) 확대,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수요산업 육성 등으로 '07~'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5.4% 늘어남
 - 각국 철강수요는 동기간 인니 6.3%, 필리핀 11.2%, 베트남 8.8% 증가
 - 한편, 2017년 수요는 인도네시아 등의 경제개혁 및 태국 국왕서거 등의 여파로 지난해 일시 감소
 - 반면, 생산은 상공정 설비 부재를 비롯한 대부분 설비 미흡으로 동기간 연평균 1.8% 증가하는 데 그침

〈ASEAN-6 조강수요 및 생산 추이〉

(백만톤)



자료: worldsteel, SEASIS

〈ASEAN-6 철강수급 실적('16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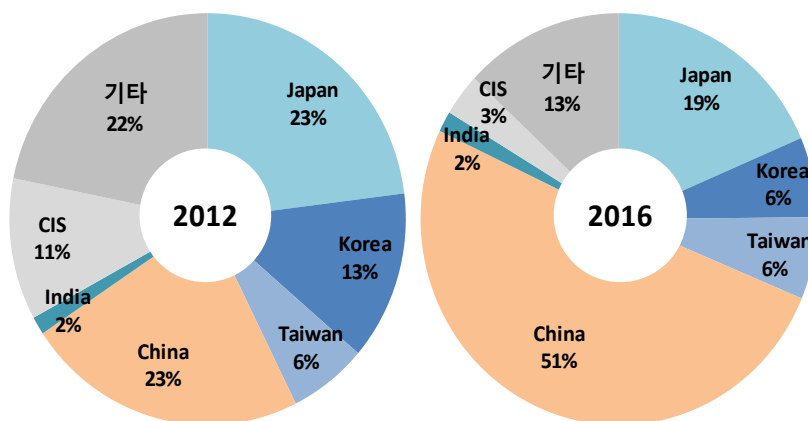
	조강 생산	증가율	수출	수입	순수입
인도네시아	4.7	△2.2%	1.6	12.6	11.0
말레이시아	2.8	△27.0%	1.4	9.1	7.6
필리핀	1.1	11.1%	0.0	7.2	7.2
싱가포르	0.5	3.8%	1.7	4.3	2.6
태국	3.8	2.9%	1.5	17.6	16.1
베트남	7.8	38.3%	2.5	19.5	17.0
ASEAN-6	20.7	6.5%	8.8	71.1	62.3

주: 순수입=수입-수출

- 철강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세안-6 수입은 2016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71.1백만톤 기록
 - 아세안-6 수입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6.2%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70백만톤을 돌파, 중국産 저가재의 대량 유입이 두드러짐
 - 중국産은 2012년 12.2백만톤에서 2016년 36.1백만톤으로 약 3배 증가, 시장 점유율도 동기간 23%에서 51%로 상승

-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아세안-6向 수출이 42.3% 급감함에 따라 인도, 러시아産 등으로의 再대체 현상 발생 추정
- 봉형강류는 동기간 13.3백만톤에서 2.9백만톤으로 무려 78.2% 감소

〈 ASEAN-6 수입 시장의 점유율 〉



자료: SEASI 주: ASEAN-6는 인니, 필리핀, 말련, 태국, 베트남, 싱가포르

○ ASEAN-6 조강생산은 20백만톤 내외에서 정제되다 2017년 베트남 상공정 설비 가동에 따라 15.7% 증가해 최고치 경신

- 2017년 5월 베트남에 포모사 제철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조강생산 기준 연산 7백만톤 확대
- 베트남은 2015년 이후 17백만톤 내외의 철강재를 수입했으나, 상공정 설비를 본격 가동하면서 중국産 등 수입재를 대체할 수 있게 됨
- 더욱이 아세안-6 생산은 베트남 중부에 Hoa Phat이 Dung Quat 철강단지를 건설해 '19년 연산 2백만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더욱 향상될 전망
- Hoa Sen은 Ca Na 일관제철소 건설을 검토 중이나 정부 지원 이슈로 지연

○ 베트남 상공정 설비가 역내 최초로 가동되자, 중국産 수입재를 일부 대체하는 동시에 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ASEAN-6 자급도가 높아짐

- 장기적으로 정부 철강산업 육성에 따른 자국 철강사의 설비 확충 및 중국 등의 현지 투자 확대 등으로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
- 향후, 중국 수출이 70백만톤 내외를 지속 유지하면 수요 고성장인 지속되는 아세안-6 시장에서의 수입 대체에 한계가 생기면서 추가적인 구도 변화 예상

- 동남아 지역은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도 경제 고성장, 인프라 확충, 자동차 산업 육성 등에 따라 철강소비 지속 확대 전망

5. 시사점

□ 글로벌 철강교역은 안정적이나, 중국産 부진을 틈탄 인도産 확대와 동남아 자급도 향상으로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·인도를 예의 주시

○ 철강 교역환경 악화와 중국 수출 급감에도 수출 확대 국가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세계 철강 교역량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

- 철강수출 시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, 수입규제 강화 등에 따른 교역여건 악화와 가장 큰 수출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중국의 부진에도 수출을 확대하는 인도, 이란 등 신규 교역국이 등장

○ 중국 수출의 70백만톤 내외 지속, 인도發 공급과잉 본격화 및 동남아의 생산설비 확충으로 아시아 역내 철강 교역구조는 점진적 변화 예상

- 중국 수출은 1~5월에도 감소하고 있어 '18년에도 70백만톤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글로벌 교역 시장에서는 중국 수출량을 예의 주시
- 인도 수출은 공급과잉 본격화로 증가세를 지속하나, G2 무역전쟁으로 갈 곳을 잃은 미국向 물량이 인도·유럽·동남아 등으로 유입되면 지속적인 증가에 제한
- 동남아는 ASEAN-6 정부의 철강산업 육성에 따른 설비 확충 지속 및 '19년 이후 베트남 중부 철강단지 완공에 따른 자급도 향상으로 장기적으로 최대 수입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

○ 교역환경 악화와 아시아 교역구조 변화에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되면서 관세 부과로 곤란을 겪는 피해국과 반사이익을 누리는 수혜국으로 나뉠 전망

- 이란, 캐나다 등은 교역환경 악화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으로 중국 수출 감소의 반사이익에 의해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수혜
- 대만 등은 G2 무역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데다 미국·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수출에 제동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[보고서/논문]

ITA, Global Steel Trade Monitor-Global Steel Exports Report, 2017.8.

ITA, Global Steel Trade Monitor-Steel Exports Report: India, 각호.

ITA, Global Steel Trade Monitor-Steel Exports Report: China, 각호.

ITA, Global Steel Trade Monitor-Steel Imports Report: United States, 각호.

Platts, Metals Insight-Global steel trade levels rise despite increased protectionism, 2017.9.

Platts, Global Market Outlook-SE Asia forges ahead while India turns to exports, 2017.5.

world steel, *World Steel in Figures*, 각호

심상형, “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계속될까?”, 친디아플러스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7.11/12.

추지미·공문기, “한중일 철강수출구조의 변화와 시사점”, 이슈리포트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5.7.

추지미, “Top 7 철강수출국의 제품 MIX 변화와 시사점”, 이슈리포트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6.10.

추지미, “수출 8000만t 지속 땀 세계 철강 경기 회복 기대”, 친디아플러스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7.11/12.

김지선 외, “무역장벽에 막힌 중국 철강, 다음 전략은?”, 이슈리포트, 포스코경영연구원, 2016.9.

[홈페이지]

중국자동차공업협회 (<http://www.caam.org.cn/>)

인도철강협회 (<http://www.jpcindiansteel.nic.in/>)

Mysteel (<http://www.mysteel.net/>)

SEAISI (<http://www.seaisi.org/>)